

# 임실군, 국비전쟁 연일 승전보

농촌지역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성수·관촌 각 40억 투입

임실군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비확보 전쟁에서 연일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 군은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2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2019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성수면과 관촌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은 성수면과 관촌면에 2021년까지 각각 40억 원씩을 투입하여 소재지 정주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점을 조성,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체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민 중심의 행복거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먼저 성수면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각 계층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간다. 작은목욕탕과 다락방, 주차장, 가로경관을 정비하는 등으로 지역 공동체를 살려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관촌면은 관촌 문화의집을 대폭 확충하여 문화복지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아이방 다락방과 관촌살이 공부방 등을 조성, 소외계층과 중장년층에게 보람찬 생활을 유도해 나간다.

주요 거점시설이 연결된 주민 생활가로의 보행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임실군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통해 면 중심지에 생활서비스 공급기능을 확대하고, 배후 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주민체감형 살기 좋은 임실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심 민 군수는 "농림부 주관의 농촌지역 발전사업이 있따라 선정되어, 살기좋은 농촌지역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규 국가 공모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관촌면 신진마을'과 '삼계면 두월마을'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과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춘향골체육관에서 3일까지 4일간 전국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열고 있다.

## 남원에서 울려 퍼진 '우렁찬' 함성

춘향골체육관 전국 세계 품새선수권 파견 국가대표선발전

남원지역에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국제대회로 춘향골 남원이 태권도 품새대회와 아시아롤러스케이팅 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선수들의 함성으로 가득하다.

춘향골체육관에서는 지난달 31일 개막해 9월 3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15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겸 제11회 세계 품새선수권 파견 국가대표선발전이 200여개 팀 2,000여명의 선수와 코치가 참가해 역대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5일 개막하는 제18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및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를 앞두고 춘향골 롤러스케이팅장에는 대만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으며, 대만 롤러스케이팅팀 선수 30여명은 지난 26일 입국해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선수단보다 먼저 입국해 경기장을 점검한 중국 롤러스케이팅 선수단 코치 라위밍(駱威霖, 영

문명 LO WEI LIN)씨는 "경기장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와 숙박 시설, 음식 등이 모두 마음에 든다"며 "새로 조성한 롤러경기장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라위밍 코치는 중국 롤러스케이팅 선수단은 16명 규모로 9월 1~2일 입국해 경기를 마치고 14일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말레이시아 등 17개국 1,500여명의 선수들도 자카르타 아시아게임을 마치고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에 맞춰 다목적 롤러 경기장을 조성하고, 경기장에 최상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LED 조명 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갖추었다.

남원시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두 대회를 통해 20여 억원의 지역 경제 창출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치매걱정 없는 마을... 남원시, '기억키움' 시범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지역 사회 중심 치매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억키움마을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억키움마을은 치매 관련 위험요인이 높은 지역으로 노암동을 우선 선정하고 주민자치회의를 거쳐 노암1동, 노암2동을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먼저 기억키움마을은 주민들의 요구도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인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지증진을 위한 운동, 다양한 작업요법 등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들의 치매로의 이환을 방지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노암동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실



남원 기억키움마을이 노암1동, 노암2동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운영되고 있다.

버함장단을 창단하여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생활 도모 및 치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알장서고 있고,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자 벽화조성 및 생활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앞으로

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사람의 도시 건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에너지이용효율화로 농업경영비 절감

남원시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절감과 겨울 재배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지열이나 지중열, 목재펠릿난방기 등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과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의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다겹보온커튼은 시설하우스 인쪽에 2중 또는 3중으로 파이프를 깔고 바닥부터 천정까지 5겹으로 제작된 보온커튼을 씌워 겨울철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

를 높인다.

이강조 원예허브과장은 "이에서는 앞으로도 시설원에 농가들의 생산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분발 또 분발' ... 임실군정 발전 총력전

임실군은 지난달 31일 군정 간부회의실에서 박진두 부군수 주재로 2019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대내외 평가와 실적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보고회는 내년도 평가지표 확정 시기를 앞두고 임실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소속 목표달성에 역점을 두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진두 부군수는 "합동평가는 대내외 평가 및 군정 이미지와 직결한다는 점에서 실적관리와 평가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실적관리의 평가결과에 전 공무



원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많은 바목 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임실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운영

임실군이 주민의 건강검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섰다.

군은 3일 강진면을 시작으로 20일까지 '하반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에 돌입했다.

이번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직장가입자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검진대상자에 대해 실시한다.

1차 검진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청력,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사 등을 실시한다.

군은 읍면 이동건강검진 시 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와의 협정으로 국가암(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검진을 병행 실시한다.

국가암 검진 실시로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원정 의료지원과장은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검진당일은 8시간 공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공중보건조사 직무교육 실시

순창보건소의료원에서는 최근 공중보건조사팀의 직무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현재 순창군보건소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조사 28명이고, 그중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조사 14명으로 보건지소별로 내과 10명과 한의과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 등 보건요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요리 취약지역에 배치된 보건지소 공중보건조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내과진료, 예방접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한의약 재택진료 등을 통해 우리지역 보건요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영관 순창군보건소의료원장은 "지역 주민들을 내 부모 내 가족처럼 여기고, 무더위에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친절한 대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바로 바로 서줄 것"을 당부했다.

군 보건소의료원은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조사 직무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